

해방의 환희를 통일의 환호성으로

이 땅 삼천리에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의 함성소리 들리는 울리던 그날로부터 어언 74년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지금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조국땅 삼천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그날의 해방만세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고 눈을 감으면 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겨레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다.

어찌 그렇지 않랴. 침략의 구두발로 삼천리 강토를 짓밟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섬나라오랑캐들에게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귀중한 자연재부를 무참히 강탈당해야 했으며 지어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조선민족이었다.

그래서 조선사람이라면 자나깨나 바라고 고대하던 해방의 날이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이 땅을 진감했다.

그러나 외세의 의한 민족분열로 해방의 감격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일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식민지배자로 군림한 외세는 인위적으로 38° 선을 그어 놓고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 놓았으며 우리 겨레에게 분열의 고통을 강요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겨레는 해방동일이 70살을 넘긴 오늘까지 민족분열의 비극적 운명을 강요당해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해방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서 조국해방을 안아 오셨다는 결코 분열된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으로 부강번영할 조국을 위해서였다.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할 우리 겨레가 긴긴 세월 민족분열의 고통과 불행은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하기가 달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민족의 통일은 더욱 굳세어지고 조국의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숙원으로 되고 있다.

8.15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그날처럼 하나의 강토에서 통일된 환호성 높이 울리려는 우리 겨레의 절기찬 투쟁은 멈출 수 없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숙원으로 되고 있다.



겨레의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1990년부터 진행된 8.15범민족대회며 6.15공동선언 발표 후 넓어진 대양의 길을 따라 온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한 통일행사를 오히려 민족의 통일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면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는 또 얼마나 격동적인 사면들로 겨레의 가슴을 울렸던가. 북과 남 사이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삼천리강토에 전례없는 평화변영과 통일의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 우리 겨레의 통일열의는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74년전 해방만세소리 높이 울리던 그날의 환희를 통일의 환호성으로 이어가자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에 통

일의 근본 열의가 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헌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우리 민족은 힘에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제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민족분열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 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폐지하고 전국적범위에 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그러서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계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 뿔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지장관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 수 없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온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함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에 합류해나사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폭절 많은 북남관계와 장구한 조국통일운동사는 외세의 존과 사대를 배격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여야 온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추구하고 나갈 때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추구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수 있다.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추구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폐지하고 전국적범위에 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때

남녘인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전하시며

1945년 12월 28일 새벽 남조선에서 2명의 기자들이 38° 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다. 그들은 말하건 미국의 《군정통치》 실시와 반통일에 의하여 혼란된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답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고 떠난 서울신문사 기자들이었다.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 뵈는 것은 도착한 그 다음날인 12월 29일이었다. 남조선기자들이 방에 들어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운 날씨에 38° 선을 넘어 먼길을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앉으시면서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남조선인민들이 울리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는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과 그 구체적인 방향을 비롯하여 남조선기자들이 기립없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대답을 주시었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기자들은 밝은 해빛을 본듯이 앞이 환히 트이고 막혔던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기자들은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남조선인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라고 물음을 드렸다. 그들의 물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버린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당산들이 남조선에 들어가면 인민들에게 나의 열렬한 인사를 전

남조선에서 《북바로알기 100문 100답》을 발간

최근 남조선에서 《북바로알기 100문 100답》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도서 《북바로알기 100문 100답》이 발간되어 사회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도서는 지난 7월 21일 남조선의 《4.27시대연원》이 창립 1년을 맞으면서 《북바로알기》의 일환으로 발간한 도서이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부제목 아래 독자들이 공화국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100가지 문제를 문답형식으로 소개하였다.

문답내용은 공화국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 인민생활, 내성, 교육, 보건, 과학, 종교, 군사, 대남관계, 역사 등 사회진반에 대하여 13개



본사기자 김광철

8월이 오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갈마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단상 8월에 갈마드는 생각

달력에는 《조국해방의 날》인 8월 15일이 명절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74년전 삼천리에 휘몰아쳐온 해방의 환희와 감격은 외세의 책동으로 인한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비극으로 바뀌어

게 되었다. 그때부터 8월이 오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갈마들곤 하는 우리 겨레이다. 그렇게 환형

욱,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 어언 74년, 그러나 민족의 아픔이 그 얼마나 크랴. 분열년륜이 덧새겨질수록 통일을 거어 이 이루려는 겨레의 열망은 더욱 높아졌으나 8월은 겨레의 통일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달로 되었다.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

대히 개최되어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민족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려고 민족의 성상 백두산정에

말하는 바로 박정희역도가 감행한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당시 체결된 《한일친구권협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항일투쟁을 탄압한 애국자들이 해방후 남조선군의 요직에 투용되었던 것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실정 때문이었다. 이런 친일파의 후손들이 오늘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결탁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일본의 체질야망을 부채질하는 망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대표적 친일파우리는 각계층 인민들로부터 《토착왜구당》으로 비난받고 있는 《자한당》이다. 《자한당》의 원 원내대표인 라경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진행된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가하여 여권의 질서를 받은 적이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적격이다. 《자한당》 대표라고 하는 황교안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문제와 관련하여 《해국정적》이 기록한 《반일감정조장》, 《자제》와 같은 실로 참을 수 없는 친일당파들을 늘어

서 국토종단대행진출정식을 열고 평양으로, 판문점으로 통일애국의 발걸음을 이어가던 달도 8월이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모시어 조국해방의 새봄이 온것처럼 우리 겨레와 세인이 경모하고 청송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리라는 것을 통일열기로 뜨거운 이 8월이 더욱 가슴깊이 새겨진다. 강성국

일본자민당의 남조선지부

이런 역적들에게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재정동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장구를 치면서 현 남조선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를 리용하여 권력을 장악해보겠다는 것이 《자한당》의 술책이다. 이런데로 부터 《자한당》은 일본반대일경계전쟁에 나서서 장수의 발목을 잡았다는 발상은 내놓고 일본편을 자처하는 것이다. 《역사 친일파다운 행위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횡포가 극도에 달한 때에 《자한당》이 벌여놓은 《대여투쟁기금》 모금운동은 당

본사기자 김철민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할 친일파청산

우리 조국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어느덧 74년의 년륜이 새겨져 있다. 40여년간 우리 민족에게 해야 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행위이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일제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지려는 죄악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기생하면서 조국과 민족앞에 섰을 수 없는 범죄를 감행한 친일파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개치며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망동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형사를 쓰고 만주군관학교와 일본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군장교로 복무한 박정희는 《대통령》 감투를 착용이른 후에는 애국적인 《한일국교정상화》를 감행한 대표적 친일파 국노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죄와 배상에 대하여 일본당국이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청구권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해결

본사기자 김광철

본사기자 김광철

일본에 대한 쌍이 고쌍인 분노의 폭발

지금 은 남북이 무분별한 경제침략에 나선 일본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불도가 너무나 높고 있으며 섬나라 속속들을 향한 저주와 성토로 잠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당국이 이번엔 감행한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섬나라오랑캐들의 제2의 침략행위로서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라는 섬나라속속들이 우리 조선에 퍼붓는 군화발을 들이밀고 남강도적이며 범죄적인 《울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4년,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때로부터 74년.

조선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날에도 일본의 군국주의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일본은 우리 겨레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힌 침략의 과거를 아직도 부인하고 반성과 사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남조선에 강도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취한데 이어 전략물자수출심사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실 전범기업의 책임을 규제한 남조선대법원의 최근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것을 기회로 남조선에 비례한 경제보복조치를 련이어 취하였다.

전범기업을 비호두둔하며 국가가 나서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행동을 하고있는 것은 한마디로 일본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주 떼뺏다라는 수작이다.

2차대전이 끝난이래 오늘까지 일본은 과거를 성근히 인정하고 사죄배상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

돌이켜보면 저들의 침략무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조선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강도적인 《울사5조약》을 날조하여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은 일제침략자들이다. 이때부터 일본사투라이들은 40여년간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야만적인 중세기적압축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려고 발악하였으며 수백만명의 인민들을 전쟁대포망, 로동노예로 끌고가 짐승처럼 학대하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도 저들의 범죄적인 식민지통치가 그 무슨 《조약》에 기초한 합법적인것처럼 파렴치하게 역사곡만행을 일삼은 일본이다.

한두명도 아닌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고다니며 일본군성노리개로 삼은 천추에 용서 못할 만인륜적죄악을 저지르고서도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매도하고 국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이에 관여한 사실도 한사코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다.

일본의 파렴치성은 독도강탈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땅인 독도를 1905년에 불법무법의 위위문서인 《시마네현고지 40호》를 통해 저들 명토에 강제편입시켰던 일본은 오늘날에도 독도가 제땅이라며 내놓으라고 강변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남강도투리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강제징용범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식민지강점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강제로 끌어가 죽음의 고역장에서 마초처럼 부러먹고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는것은 력사에 새겨진 갈수록 없는 사실이다.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일본의 《번영》의 밑바탕에는 무수한 조선사람들의 피와 시체가 깔려있다. 간악한 일본은 조선사람들의 고향을 재내 발전소엔제를 쌓고 수천척 지하막장의 탄들을 캐냈으며 군수물자들을 대량 생산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조선인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생매장하고 학살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과거에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자면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통째로 섬겨버쳐도 모자란다.

그런데도 남조선대법원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례한 보복조치로 대답하였으니 얼마나 간두하고 파렴치한 나라인가.

과거범죄를 인정사죄하지 않고있는것은 그러한 과거범죄를 다시 저지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인하고 오히려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위험천만한 제정의 길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일본이 벌리고있는

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아베당당의 책동에 누구나 분노를 금치 못하는 우리 겨레이다.

2019년, 우리 겨레와 세인이 지켜보는 속에서 퍼붓는 승냥이의 이빨을 다시 드러낸 섬나라 일본.

남조선을 병탄하려고 경제침략의 포문을 연 일본의 모습은 114년전 군대와 대포를 끌고와서 조선왕궁을 점령이 포위하고 나라를 내놓으라고 강박하던 일본의 침략광기 그대로이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너까리며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학살하던 살인귀들의 횡포 그대로이다. 조선사람들의 피땀을 재내고 귀중한 자원을 약탈하다못해 가정에서 쓰는 낫그릇, 숟가락, 저가락까지 약탈하던 그 흉혈귀들의 상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에 온 남녘이 분노로 잠들지 못하고 있다. 가슴에 사무친 일본에 대한 분노심을 폭발시켜 반일투쟁에 총열기 해나서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천년속적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본시기자 유금주

일본은 대대손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은 들끓은 천년속적이다. 특히 수십년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등과 불행은 세계 그 어느 력사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 과거범죄들에 대해 리골만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지난날의 국가적재정행방죄를 한사코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아 국제적비난의 초점이 되고있는 일본이 참혹한 피해자인 조선민족의 존엄을 지금도 백주에 무참히 란도질하는 야수적본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이 경제징용피해자배상과 관련한 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해나섰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섬나라속속들의 침략군성과 파렴치성을 잘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규탄해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자인 일본의 권역을 드는 《자한당》을 비롯하여 보수패당의 쓸개빠진 친일매국당풍이다. 보수패거리들이 어제는 일본의 과거죄악을 백지화해주는 별의별 매국당들을 다 일삼더니 지금은 현

법을 뜯어고치려 하면서 군국주의재침착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 일본의 망동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있으니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다. 이런 친일매국노들이 있어서 일본이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반일투쟁이 고조되고 교원들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일본반동들에 대한 쌍이 고쌍인 분노의 폭발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죄를 저질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과거죄악을 반성사죄할 줄 모르는 철면피한 나라, 해외침략야망이 풀수 없게 과거범죄의 전철을 다시 밟고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반동들은 명심해야 한다. 저들의 치명적인 과거범죄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원한으로 새겨져있으며 지금도 천년속적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고 있는것을.

우리 겨레는 세기를 이어나가며 조선민족에게 저지르고있는 일본의 범죄적만행을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며 거이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고 야말것이다.

김책공업중급대학 정보과학 기술대학교원 김성혁

세대를 이어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



일본과 끝까지 결산하려는 견결한 의지의 과시

남조선에서 반일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연대를 비롯한 5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의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7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열었다. 수천명의 중증이 참가한 집회장에서는 《아베를 규탄한다!》, 《경제침략 규탄한다!》, 《천일적계 정산하자!》 등의 구호가 련속 울려 퍼졌다.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각종 투쟁단체들과 시민들도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매일같이 벌리고 있다. 상인과 자영업자, 청년대학생, 고등학교학생, 가정주부를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에 일본상품배척범시

민운동과 친일잔재청산 범국민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한편 5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 26일 《일본수출규제공동대응 지방정부련합》을 구성하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모여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였으며 부산과 울산, 대전, 충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도 반일련대투쟁조직들을 내오고 다양한 반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위투쟁참가자들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 토요일마다 초불집회를 진행하며 8.15에는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대규모 초불투쟁을 전개할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자한당》것들과 구유보수언론들을 《아베의 앞잡이정치세력》, 《천일적계정산》으로 규탄격려해나서고 있다.

남조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은 점차 조직적인 대중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7월 4일 일본은 남조선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문제삼아 반도체부품수출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초에는 남조선의 《백색국가》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하는 등 경제침략의 문호를 점점 넓히고 있다.

저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과거범죄에 대한 명백한 부정적이고 극도에 이른 군국주의재침략야망의 발로이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 74년이 되어오는 지금도 저들의 엄청난 과거죄악을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배상도 계속 회피하고있는 철면피한 일본이다.

도리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규제한 남조선대법원판결을 문제삼아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는 남강도적인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행동이다. 사투라이후예들의 침략군성의 발로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남조선에 저들의 하인으로 굴복시키고 나아가서 남조선을 경제식민지로 타고앉히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세기는 바뀌어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고이 간직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침략광기이다.

남조선도적에서 돌벌레처럼 번지고있는 각종 반일투쟁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천년속적 일본에 대한 쌍이 고쌍인 분노의 폭발이며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이다.

이것이 부정의를 이기는 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일본의 남강도적인 경제침략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고조되는 투쟁열기는 조국해방의 아침이 밝아왔던 8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재석

남조선언론들 소녀상 전시를 가로막은 일본을 규탄

지난 5일 남조선 《경향신문》,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가 국제예술편진회에서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강제로 중지시킨 일본을 규탄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얼마전 일본에서 진행된 국제예술편진회에서 출품되었던 소녀상이 일본당국의 공공연한 압력으로 철거되었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비롯하여 그동안 일본정부의 탄압으로 전시되지 못하였던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어있었으나 전시회가 개막되자마자 일본정부의 로골적인 중단압력과 우익세력의 위협에 부딪혔으며 결국 전시회에서 소녀상이 사흘만에 강제철거되고 해당

전시회도 통째로 중단되었다고 사실은 개탄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해외에서도 자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난 2일 도이철란드의 한 전시관에서 시작된 전시회에 소녀상이 전시되자 철거를 압박하였다고 까발렸다.

사실은 이보다 앞서 어느 한 기념관에 전시되었던

10cm도 채 안되는 작은 소녀상마저 일본정부가 기념관측을 압박하여 철거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경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해 경제침략으로 보복하고 예술마저 짓밟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사실은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장비들을 마음대로 끌어들여 전쟁놀이를 벌려놓고 저들의 먹살을 쥐고흔들어도 한번 한마디 못하는 추물들이 동족의 정당한 조치들을 걸고드는데만 눈이 빨개 돌아다니 《국회》나부랭이들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혈세도적》, 《더러운 시정배》, 《눈먼 정치인》으로 손가락질받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초보적인 리성마저 없는채도 하나의 동족결명당을 저지른 남조선의 《국회》떨거지들이야말로 정정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리성도 부족하고 부당관계를 파국과 대결로 몰아가는 추악한 반민족적당동인것이다.

외세가 우리 강토에 살인

초보적인 리성도 없는 추레

충한 규면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국회》나부랭이들이 저들의 복직전쟁준비소동은 가리운채 그 누구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놀음을 벌린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고 부당관계를 파국과 대결로 몰아가는 추악한 반민족적당동인것이다.

대면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정상적인 군사력강화조치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며 시비하는 남조선 《국회》떨거지들이야말로 정정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리성도 부족하고 부당관계를 파국과 대결로 몰아가는 추악한 반민족적당동인것이다.

외세가 우리 강토에 살인

신성일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첫 화물자동차 《승리-58》형 제 1호

공화국의 력사에는 덕천자동차공장(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40일만에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 뜻깊은 사연도 잊어지지 않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시기가 끝나고 제1차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를 생산할때 대한 과업을 덕천자동차공장에 주시였다.



첫 화물자동차 《승리-58》형 제 1호

자동차부속품공장으로 발족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데 덕천자동차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 과업을 받아안고 흥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체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자동차부속품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이 땅에서, 더우기 전쟁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었던 공화국에서 전후 5년만에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여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덕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동차부속품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난관과 예외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자동차생산을 위해 용당 있어야 할 특수기계들과 전문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고 한장의 설계도면도 없었다.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도 없었으니 처음에는 수천종의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기술장비가 필요인지조차 몰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현존설비와 기술로써는 자동차를 생산할수 없다고, 조선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하였다.

이러한 때인 주제47(1958)년 10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품소 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자동차생산을 필요성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면서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야장간에서 맨주먹으로 연결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놈들을 죽이던 그 정신으로 투쟁하면 능히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조선사람이 만든다고 자랑할수 있다, 라는 말을 하시였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덕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떤 난관과 예외가 있을지 모르아도 항일유격대원들이

야장간에서 폭탄을 만들어낸 그 정신으로 반드시 자동차를 생산해낼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이들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자동차생산을 돌입하였다. 설계도면은 없었지만 자동차를 뜯어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부속품을 하나하나 깎아나갔고 철판을 망치로 두드려 차체를 만들었다.

조립하다가 부속품이 맞지 않으면 또다시 깎았고 그레도 안되면 열면, 스무번이라도 고쳐짜고 두드려서 끝까지 해내고야말았다. 이들은 3 000프레스가 없이는 도저히 차체를 만들수 없었다는 의견을 대담하게 물리치고 파고철을 모아 400원 감속프레스를 만들어 차체를 다량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이런 백절불굴의 투쟁과정에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시작하자 40일만에 첫 화물자동차 《승리-58》형 제1호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이 만든 화물자동차를 보시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나라의 공업발전과 기술혁명에서 큰 사변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화물자동차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는 조선로동계급의 위력을 시위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력사에 아로새겨졌다.

본사기자 김준경

—나래도자기 공장을 찾아서—

최근 《나래》 위생자기제품들이 소비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색과 형태, 실용성과 편리성 등으로 하여 나래도자기공장제품들이 하나같이 좋다고 말하곤 한다. 그 소문에 이끌려 취재의 발걸음을 나래도자기공장을 찾아가 보았다.

공장내에서 박성일부원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원료작업반에 들리었다. 공장에서는 위생자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고있었다.

이어 기자는 모형작업반에도 들리었다. 모형에서 형태를 타, 형태에서 제품이 만들어진다.

최근 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도 공장설정에 맞게 만든 설비들이었다. 공장에서는 위생자기생산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소성로를 설계제작하여 탄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었다.

기자를 안내하며 박성일부원은 《위너워내도 제원이 제일이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주목을 끈것은 공장의 기업전략, 경영전략이었다. 이곳 일꾼들은 있는 로력과 원료, 설비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량을 늘이기 위한 방안을 최량화, 최적화에서 찾고있었다.

공장에서는 생산건물의 1층과 2층에 소성로들을 배치하고 모든 공정이 연속적으로 맞물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생산면적을 훨씬 줄이고 소성공정에 나오는 케셀로 제품건조와 저울원 작업장은도 보장할수 있어 여러모로 좋다고 한다.

그리고 설비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제품생산주기를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로력과 자재, 동력을 극력 절약하고있었다.

중전에는 도자기원료인 니장을 바계프로 날라다 형태에 부어 제품을 성형하던 자동화하여 리상적인 소성온도를 보장하도록 제품실수율을 높이고 제품당에 네르기소비를 훨씬 낮추고있었다.

돌아볼수록 모든것을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 이 공장일꾼들과 작업원들의 기풍으로, 습적으로 되고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기자와 만난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의 한쪽 나래가 자력갱생의 정신이라면 다른 한쪽 나래는 과학기술이다. 이 두 나래를 활짝 펴고 위생자기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겠다.》

힘을 넣고있었다. 얼마와 건조공정을 거친 반제품에 유약을 입히는 작업장에 들어서니 시유공들이 소성공정에 분무한 유약을 어떻게 변화되였는가를 타산하면서 분무작업을 하고있었다.

도자기의 질은 성형공정과 시유공들의 기능에 크게 달려있다. 성형공들의 기능이 낮으면 제품이 기포가 생기고 정결도가 떨어지게 된다. 도자기의 소성을 하고나면 수증기나 보석을 할수 없기때문에 시유공들의 기능이 낮으면 도자기의 질을 높일수 없게 된다. 공장에서 생산한 위생자기제품들의 질이 높은것은 성형공, 시유공들의 기능이 높기때문이었다.

실험실에서는 제품의 기본원료인 니장의 리상적인 배합비율을 확고하고 유약을 만들고있었다.

리향미실장의 말에 의하면 유약에 따라 소성한 도자기의 물흡수율과 백색도, 정결도와 광택 등 제품의 질적특성이 달라진다고 한다. 실험공들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질 좋은 유약을 만들어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있었다.

공장에서는 소성공정도 자동화하여 리상적인 소성온도를 보장하도록 제품실수율을 높이고 제품당에 네르기소비를 훨씬 낮추고있었다.

돌아볼수록 모든것을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 이 공장일꾼들과 작업원들의 기풍으로, 습적으로 되고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기자와 만난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의 한쪽 나래가 자력갱생의 정신이라면 다른 한쪽 나래는 과학기술이다. 이 두 나래를 활짝 펴고 위생자기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겠다.》

본사기자 황금숙

그런것으로 하여 모형제작공들은 각종 위생자기모형들을 기술적요구대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었다.

공장에서는 위생자기모형을 만드는데 쓰는 석고를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리용하고있었다. 그리고 레진장치와 배공장치도 제힘으로 만들어 설치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있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소성로에 반제품을 넣는 대차, 유약칠 분배장치, 작업승강기, 압

중증체육열기가 날로 더욱 높아가는 요즘 사람들속에서 《대성산》상표를 단 체육기재들에 대한 호명이 자자하다.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들의 가치수도 늘어나고 질도 현저히 높아졌다.

실용거리의 자그마한 야산기슭에 아담하고 정교하게 들어앉은 평양체육기재공장.

건물의벽에 부착된 《대성산》상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이곳 공장의 지배인이 반겨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찾은 제품본실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 색깔의 《대성산》체육기재들이 종류별로 진렬대들에 꽂차 있었다.

종목별로 따르는 선수용 가방, 문지기장갑, 권투장갑, 각종 보호대, 여러 종목의 그물, 정구공, 축구공, 배구공...

다양한 체육기재들을 바라보느라니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작업원들을 만나보고싶었다.

생산현장으로 들어서니 실감기계, 가죽쪽볼기 등

대중체육열기가 날로 더욱 높아가는 요즘 사람들속에서 《대성산》상표를 단 체육기재들에 대한 호명이 자자하다.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들의 가치수도 늘어나고 질도 현저히 높아졌다.

실용거리의 자그마한 야산기슭에 아담하고 정교하게 들어앉은 평양체육기재공장.

건물의벽에 부착된 《대성산》상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이곳 공장의 지배인이 반겨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찾은 제품본실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 색깔의 《대성산》체육기재들이 종류별로 진렬대들에 꽂차 있었다.

종목별로 따르는 선수용 가방, 문지기장갑, 권투장갑, 각종 보호대, 여러 종목의 그물, 정구공, 축구공, 배구공...

다양한 체육기재들을 바라보느라니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작업원들을 만나보고싶었다.

생산현장으로 들어서니 실감기계, 가죽쪽볼기 등

본사기자 황금숙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국어는 해당 나라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인 교제수단으로 사용하고있는 언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어는 조선어이다.

지금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수십개의 국어(또는 국가공용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수십 개의 나라만이 자기의 독자적인 국어를 가지고있고 언어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국어를 사용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자기의 독자적이고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다.

조선어는 그 우월성과 유구성, 순결성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우수한 언어이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조선땅에서 기원하여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어는 우리 민족 풍부화되어왔다. 바로 여기에 조선어의 단일성과 유구성이 있다.

조선어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언어체계의 구조가 발달되고 아름답게 세련된데 있다.

조선어는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

름답다.

조선어는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율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

특히 발음이 매우 풍부하며 배의범절도 똑똑히 나타낼수 있다. 또한 조선말도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달

에 우리 말의 풍부한 말소리를 마음대로 다 적을수 있으며 그 어떤 나라의 말도 거의 다 기록할수 있다. 훈민정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때문에 그 원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글자를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리하다.

세계언어학자들이 이구동

이는 다 있으며 일부 민족어에서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국가적인 단일한 언어교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그러므로 국어제정에서 언어기준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평양문화어는 인민적인 문풍을 본보기로 하여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이 집대성되고 현대적으로 세련된 조선어의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어-조선어는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합되는 무기로 되고있고 인문문화발전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조선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상에 자랑눌은 국어-조선어

달된것으로 하여 치밀한 문법적미를 정확히 표현할수 있다.

조선어는 또한 자기의 고유한 민족글자를 가진 우수한 언어이다.

지금 지구상에 수천개의 언어가 있으나 그가운데서 자기의 말과 함께 고유한 글자를 가지고있는 언어는 많지 않다.

훈민정음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글자로서 15세기에 창제된 매우 발달된 우수한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사람의 말소리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자음과 모음의 날소리를 표기할수 있기때문

으로 높이 평가하는 훌륭한 언어 조선어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고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이어올수 있었다.

조선어의 기준은 평양문화어이다.

어떤 민족어나 방언의 차

성으로 높이 평가하는 훌륭한 언어 조선어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고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이어올수 있었다.

조선어의 기준은 평양문화어이다.

어떤 민족어나 방언의 차

성으로 높이 평가하는 훌륭한 언어 조선어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고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이어올수 있었다.

조선어의 기준은 평양문화어이다.

어떤 민족어나 방언의 차



수자증시의 기풍으로

작은 수자들도 우리 공장 사람들이 깨끗한 랑심과 맑은 새기는것인데 어떻게 반울림으로 더 불클수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사물작업반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왔다. 지난 시기 구두창생산에 열화비닐 100kg당 200g정도의 수입산 발포재가 리용되었다고 한다. 결국 500대 이라는 량의 수입산재가 첨가된 공장이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초립계 탄산가스에 의한 열화비닐발포창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수입산발포재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구두창의 무게를 15g 더 경량화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구두창 한개당 15g의 자체절약비를 찾아낸것으로 된다. 리콜모아 큰자은 비록 작아도 그것을 모으고 합치면 나라의 큰 재부가 되는것이다.

이런 절약의 수자, 증산의 수자들이 합쳐져 적대세력들의 재를 물리치는 승리의 시간표, 행복과 번영의 시간표가 된다고 원산구두공장

직장장은 말하였다.

수자를 증시하는 기풍은 지난 6월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에도 느낄수 있었다. 그때 한 작업반장을 만나 하루 모내기실적을 묻자 그는 3.06정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소수점아래 수자를 정확히 적어주실시오.》라고 곱셈어 말하는 것이었다.

수십정보의 눈을 다루는 작업반에서 0.06이라는 그리커보이지 않는 수자를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넘겨짚은듯 작업반장은 얼마전 농장적인 새땅찾기총화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날 작업반실적을 300여평이라고 대답한 그에게 농장일꾼은 《정확히 300평하고 얼마요?》하고 되물었다. 20평이라는 대답을 듣고난 그 일꾼은 한평이라는 수자는 작지만 나라의 쌀밭은 바로 그 한평한평의 땅에 의해 채워진다고, 한개 작업반에서 20평이면 적어도 낫알이 40kg, 5개 작업반을 합치면 농장적으로 200kg이나 된다고 말하였다

는것이다.

300여평과 320평, 레사롭게 대할수 있는 수자였지만 그것은 자기 일터 나아가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가르는 시금석인 것이다.

이처럼 수자를 증시하며 구체적인 타산밑에 간지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취재길에서 많이 만날수 있었다.

주체철용광로의 생산성을 0.0001%라도 더 올리기 위해 피라게 탐구해가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 자체소비량을 kg이 아니라 g으로 엄격히 따지고 0.01%라도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건당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절연물생산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 안주절연물공장의 종업원들, 비로시비량, 물소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한강한강 간간히 따져가며 일해가는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일꾼들, 과학적인 타산과 치밀한 계산으로 도안의 자력갱생기지를 날로 확충시키려나가고 있는 강원도과학기술회회

본사기자 흥복식

과학기술열풍속에 높아가는 제품의 질

—평양체육기재공장에서—

운영일지를 펼쳐보았다. 월별, 주별, 일별운영계획이 반영되어있고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의 강의참가정정도 빠짐없이 적혀있었다. 지배인은 《이 동무들이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입니다.》라고 말하며 명단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대부분인데 김책공

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다고 한다.

이런 과학기술열풍속에 늘어나는 질 좋은 새 제품들이다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예새 일하는 이 공장종업원들의

성실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제품검사실과 제품창고 등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고난 기자에게는 공장의 모든것이 새롭게 안겨왔다. 이곳 종업원들속에서 새차게 일어변지는 과학기술열풍이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체육열풍을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할것이라고 확신했다.

본사기자 김철

